



예술가와 돈, 경계의 허무



이강렬 극작가 본지 논설위원

오늘의 예술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것은 공연장 대관, 스텝진의 고용, 무용수 혹은 배우들의 사용이 모두 옛날같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IMF이후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등 각 공연장들이 '수익성 증대'라는 잣대에 억눌려 모든 무대 시설 사용비를 상승시켜 놓았고, 그간 고용했던 기술 스텝진들도 모두 프리랜서로 밀려나면서 들어가지 않아야 할 돈들이 2배로 더 들어가고 있는 탓이다.

JTL의 추위 녹이는 성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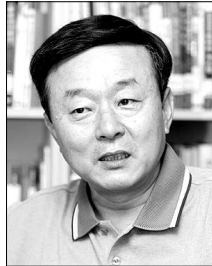
인기가수 JTL(정우혁, 토니, 이재원)이 2천여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 쌍암사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SBS의 '스타도네이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JTL이 3시간여 동안 '사랑의 포장마차'를 운영해 조성된 것이다. 10여명의 아이와 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쌍암사는 "JTL의 성금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극축마

부실로 얼룩진 수행공간

동국대 학수기숙사 백상원이 심각한 노후현상과 부실로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계종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0월 13일 백상원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이같은 결론을 냈다. 조사에 참여한 한 스님은 "이렇게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치료비에 들어간 빛을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어 연명하고 있는 딸의 산소호흡기를 떼어 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간 딸의 치료비에 들어간 돈이 3억여원이 넘었다. 집까지 팔아가며 입원비를 보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치료가 계속되자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딸이 물고 있는 가정용 산소호흡기의 전원을 껐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살인혐의로 구속되었다. '딸을 죽인 죄인이 무슨 할말이 있겠느냐'라는 아버지의 회한이 기사에 곁들여져 있다.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소설가·대진대 문창과 교수

아버지의 눈물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악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또 오신다.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짙은 아버지의 서늘한 웃자락에 얼토박이한 볼을 맞았을 것이었다. 바깥길 선생의 '성탄제'라는 시의 일부이다. 별달이 같은 고열로 앓아 누워있는 자식을 위

해 눈보라치는 밤길을 헤치고 악을 구해온 아버지의 애뜻한 사랑을 노래한 시이다. 내가 일곱 살 때, 다섯 살이었던 누이가 죽었다. 한창 재물을 털 나이에 죽었다. 실직한 듯 오열하는 어머니 곁에서 덩달아 나도 악을 쓰며 울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울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을 불러 어둑어둑한 새벽녘에 시신을 가마니에 들들 말아 지게에 지고 대문을 나서서 갔었다. 삼파 곡괭이를 든 이웃 아저씨들이 뒤를 따랐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광경은 선명하게 남아있다. 아버지의 무덤덤함과

비정함이 무서웠다. 새벽녘에 나간 아버지와 이웃 사람들은 해가 뉘엿뉘엿할 무렵 돌아왔다. 아버지는 빈 지게를 지고 비틀거리며 대문을 들어왔다. 숲이 얼큰한 상태였다. 어디다가 묻었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이 이슬할 무렵, 나는 짐승의 울음 같은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 아버지는 사랑채 기둥을 잡고 소리를 죽이며 울고 있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울을 쓰듯 울음을 삼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 광경 역시 선명하게 남아있다. 진땀을 흘리듯 개억개억거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훑쳐보며 나는 숨소리를 죽였다.

살과 죽음에 대한 견해와 성찰을 배워야하는 계절이다. 안락사의 문제, 국가의 기능, 건강보험의 확대 등 현실의 문제는 잠시 접어둔다. 드라마에서 벌이는 어지러운 사랑타령으로 흘러는 눈물에 대해서도 접어둔다. 누르고 삼키며 통곡조차 실컷 할 수 못하는 아버지들의 눈물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 눈물이 천도의 길에 한 잎 한 잎 놓이는 연꽃이 되길 서원한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사회문화적 과제

소비문화 뛰어넘는 여가문화 필요

문화와 평일예배 실시와 같은 전통과제 움직임, 천주교의 관광사목, 가족피정의 강화 등은 종교의 세속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교화전력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는 종교의 사회적 여가 프로그램 강화도 중요한 사안이다. 종교 기관이 위해 중심지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환경·봉사·교육·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지향함으로써 문화사회의 허부구조 역할을 할 수 있다. 불교에서 언급하는 '길식과 노동'은 겉으로는 모순적이지만 본의를 살펴보면 하나의 개념으로 귀결된다. 양쪽 다 영적인 삶과 연관되었을 때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불교의 이상향은 노동과 여가가 일치하여 모든 생활이 불법구원을 위한 신행으로 충만해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외된 노동' '강요된 노동'의 최소화하고 이를 통한 '영적 향유시간'의 확보는 이러한 불교적 이상향의 충족조건이 되며, 주5일 근무제는 그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일상과 연결된 '생활종교'로 변해야

전명수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주5일 근무제는 그 자체가 문명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문화 변동을 잠재하고 있다는 면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종교는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주5일 근무제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어 이를 주목해 살펴 볼 필요가

내년부터 사업장별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주5일 근무제라는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는 종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종교계에서도 새로운 신행 프로그램 개발, 예배 시간 변경, 문화행사 개최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10월 22일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사회문화적 과제'를 주제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종교계의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리=오유진 기자)

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사회문화변동 가운데 탈종교 경향의 심화는 '신명성 운동'이란 자유로운 개인적 영성의 개발이 중심을 이루는 개인주의적 종교운동으로, 미국에서는 '뉴에이지 운동', 일본에서는 '정신세계', 한국에서는 '기수련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적 안정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적 평화 중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실용성 등으로 인해 기수련은 확대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요일에서 금요일로 예배시간을 옮긴 개신교 교회가 등장했다. 생활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종교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형태라고는 볼 수 없다. 종교계가 주5일 근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대중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실제로 많은 종교단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개인의 여가와 취미생활을 위한 장치를 해 놓았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의 과제로 제시되는 창조적 여가문화의 창출이 쉽지 않은 양아 보인다. 아직은 여가문화와 인프라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 안락한 여가생활을 즐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종교는 '생활종교'로 자기변화를 꾀해야 한다. 종교가 일상생활과 격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 의미와 답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특정 요일에 종교의례를 행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남녀평등, 환경문제와 같은 주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주5일 근무제라는 변화된 상황에서도 종교가 계속해서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로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우리를 주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불자정보 강적인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5cm=50,000원 · 전화: 02)732-1522 (직) 02)737-8881 (대) · FAX: 02)737-0697

사찰안내 ● 위치: 경북김천 ● 위치: 강원 ● 위치: 충남논산 ● 법당: 13평 ● 법당: 15평 ● 법당: 20평 ● 묘사: 30평 ● 묘사: 20평 ● 묘사: 100평 ● 부지: 335평 ● 부지: 980평 ● 부지: 713평 ● 가액: 1억7천 ● 가액: 1억8천 ● 가액: 3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위치: 대전시 대흥동 보문산길 ● 3층 건물중 2층 33평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불 108불, 신중단 ● 옥탑방, 지하 사용가능 ● 몸만 와서 운영가능 ● 전세 2천, 시설투 1800만원 011)9867-9822

사찰안내 ● 위치: 계룡산 ● 대지: 99평 ● 건물: 12층으로 50평 ● 실사용평수: 250평 ● 마담이 잔디밭, 주차 진입가 대전 유성에서 15분 거리 ● 시설: 1층-방, 주방, 화장실 2층-방3개, 불박이장 ● 현대식 시설, 공기 좋고 산세수려 ● 가액: 1억9천5백만원 042)823-1425 / 016)9838-1425

사찰안내 ● 위치: 서울 근교 사찰 ● 위치: 서울 요지 포교당 ● 부지: 840평 ● 면적: 35평 ● 법당: 60평 ● 보증금: 2천 ● 건물: 200평 ● 월세: 50만원 ● 납골당 가능: 15억 ● 시설비: 300만원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안내 ● 위치: 서울시내 ● 위치: 경북 청송 소재 ● 대지: 80평 ● 부지: 2500평 ● 법당: 40평 ● 법당: 35평 ● 묘사: 80평 ● 묘사: 100평 ● 양도가: 6억 ● 양도가: 3억5천 * 역사 깊은 도심 사찰임 * 산세 좋음 한국불사 02)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양수할 수 넘겨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터안내 ● 위치: 충북보은에서 10분거리 ● 산종교 약수물이 풍부해 금강산투기 앞에 보이는 사찰터로 적당한 곳 ● 전 1,834평, 평당가 35,000원 ● 답사후 절충가능, 주인 직접 011)792-8969 야간 043)542-7944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하남시 신정4거리 ● 4층 건물 중 5층 ● 법당, 방2칸, 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 가능) 2천만원, 월 30만원도 가능 011)9093-0108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대구 근교 ● 위치: 경기도 광주 ● 대지: 170평 ● 가족납골당으로 적합 ● 인산(인법당) 20평 ● 입산배수형임,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 뛰어난 곳 ● 묘장: 주차장완비, 넓은 정원 ● 총 2500평 ● 가액: 1억9천만원 대구·영남권 사찰 및 부동산 전문 컨설팅 (양도·양수 하실분 상담 환영합니다) 절대 비밀 보장 해인불사 011)245-5467 / 053)586-0423

사찰(인법당)안내 ● 위치: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자리잡음 ● 도심포교 또는 어린이집, 전세 투자 전용용 ● 부지: 약300평 가량(활동개인명 임야임) ● 건물1: 평수 45평중 법당 15평, 스님방 1, 공양방1, 목욕, 실내화장실, 심의 화장실 ● 건물2: 묘사채 40평, 방6개, 목욕, 실내화장실, 심의 화장실 ● 부지가 40년된 건물로써 건물 등기 구형에 등기되어 있음(평은 타 개인명임) ● 가액: 건물1 - 1억7천만원(1년안된 건물임) 건물2 - 1억3천만원(1년6개월된 건물) ● 각각 매매도 될, 가격 절충가, 전세도 될 011)709-7659 / 02)932-7659

사찰(터)안내 ● 팔공산 은하사 부근 분계포천형 ● 안대수려, 300년 고찰도량 ● 임야: 2500 당(3천원), 승용차전입 ● 방3, 법당1, 산신각1(목조건물) ● 위망 매입시 약간의 시설비로 사용가능 ● 법적 바로할 수 있음 016)627-4260

포교원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부근 ● 55평, 임대, 법당(삼존불,산신각, 108 지장보살님) ● 방3개, 주방, 화장실 ● 가액: 7천만원(상당부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6)243-1643 02)907-1643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조상신과 증영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물 또는 나무뿌리가 잠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전도시 영기가 새우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기가 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익한 중임신도 단병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접어줍니다. (모든 범위영)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무기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 이루는 분 ● 법마나 기워누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지못는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 조상의 유력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